

## 문화광장



홍정호

작곡가

작곡가로서 꿈만 같은 일이 필자에게 찾아왔다. 오스트리아 음악 출판사 유니버설 에디션(Universal Edition)의 예술위원회 심사를 거쳐 아티스트로 합류하게 됐다는 소식이다. 2025년 표선원드오케스트라(감독 강훈)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위촉 작곡한 '아리랑 No.1'을 유니버설 에디션에 제출한 지 약 8개월 만의 결과였다.

제주는 늘 '자연이 아름다운 섬', '문화의 섬'으로 불린다. 반면 창작자의 입장에서 섬은 동시에 고립의 공간이기도 하다. 물리적으로

## 섬의 창작자는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가

는 바대로 둘러싸여 있으며, 구조적으로는 유통과 교류의 중심에서 한 발 떨어져 있다. 섬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오며 늘 마주해 온 질문은 단순하다. 이 작업은 과연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가?

세계적인 음악 출판사 유니버설 에디션을 통해 작품을 국제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이 질문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구조의 문제로 다가왔다. 1901년 빈에서 설립된 유니버설 에디션은 오스트리아 음악 시장을 자국 출판으로 구축하고, 고전과 교육용 음악을 기반으로 하되 당대의 새로운 음악 언어까지 책임지기 위해 출범한 출판사다. 이후 말리, 쇠베르크, 바르토크 등 20세기 음악사의 전환점을 만든 작곡가들의 작품을 기록하고 유통하며, 이미 겸증된 음악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담은 음

악을 선택해 온 출판사로 자리 잡았다.

국제 음악 출판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며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세계는 생각보다 가까웠지만, 동시에 매우 냉정했다. 작품은 지역을 이유로 평가받지 않는다. 다만 그 작품이 어떤 언어로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언어가 동시대와 소통 가능한지만이 남는다.

섬은 늘 경계에 있다. 바다와 육지 사이, 고립과 개방 사이, 전통과 현재 사이에서 있다. 이 경계성은 창작자에게 고유한 질문을 던진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러나 철학만으로 창작은 지속되지 않는다. 섬의 창작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고독 그 자체가 아니라, 고독이 구조로 굳어질 때다. 작품을 발표할 무대, 기록할 시

스템, 다시 불러낼 유통의 경로, 즉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부족할 때 창작은 개인의 소진으로 끝난다. 많은 지역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고 사라지는 경험'을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화예술 정책이 고민해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다. 섬의 창작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창작이 섬 안에서만 맴돌지 않고, 다른 섬과 대륙, 다른 언어와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것. 그것이 정책의 역할이어야 한다. 세계와의 문화예술 교류는 더 많은 행사가 아니라, 더 오래 남는 경로를 찾는 것이다.

섬에서 태어난 창작이 섬을 넘어 세계로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순환의 구조, 그것이 진정한 '문화의 섬'을 만드는 조건 중 하나일 것이다.

## 열린마당

## 제주도 도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김정옥  
제주도 건설과

우리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도로를 이용한다. 제주도의 도로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어, 어느 방향으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걷고 달리는 이 길들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제주에서 가장 먼저 개설된 도로는 1920년대 일제가 해안을 따라 건설한 '신작로'였다. 이후 1960년대에는 제주시와 서귀포를 연결하는 5·16도로가 개통돼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같은 시기, 해안을 한 바퀴 도는 일주도로도 완성돼 도민과 관광객의 이동이 빨라졌다.

이후 제주의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제주도의 구석구석까지 도로망이 개설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도로 총 길이는 약 2646km이며, 이 중 95% 이상인 2538km가 포장돼 있다. 도로망은 총 4개로 구성되는데 번영로, 남조로 등 2개 노선으로 이뤄진 국가지방지방도, 특별자치도 이전 국가에서 관리하던 5·16도로, 일주도로 등 구국도 5개 노선을 포함한 지방도 16개 노선, 애월~신촌 및 상창~위미를 잇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2개 노선이 있다. 이외에도 시도(市道) 2157개 노선이 있다.

도로 개설의 역사는 곧 제주의 발전사이며,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의 수단이었다. 앞으로도 제주도의 도로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지되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뉴스-in

## 후쿠오카 관광객 유치 기대감 피력

오지사, 일 방문 성과 공유

○…오영훈 지사가 지난 22~25일 일본 후쿠오카현과 사가현을 방문하고 도쿄 재일동포 신년인 사회에 참석한 성과를 공유하면 서 지난해 12월 22일 6년 만에 재개된 제주~후쿠오카 직항 노선에 따른 관광객 유치 기대감을 피력.

오지사는 26일 주간혁신성장 회의에서 "후쿠오카현 관광기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주 관광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현지 캠페인 이 적시에 잘 이뤄졌다"고 평가.

이와 관련 제주도는 현지 공항 슬롯 확대와 출발 시간대 조정을 검토하는 한편 2월 여행업 박람회, 3월 팝투어, 4월 '도쿄 케이(K)-관광 로드쇼' 등을 통해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

고의숙, 교육감 출마 선언

○…올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교육감 선거 출마 후보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고의숙 교육 의원이 현역 교육의원 중 가장 먼저 제주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

다음 달 8일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인 고 의원은 26일 언론사에 보낸 자료에서 "이달 29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제18대 제주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예고.

전국 유일했던 교육의원 제도 폐지로 제주도교육감 출마 후보군에 고 의원을 포함한 김창식·오승식 등 현역 교육의원들의 이름이 오른 가운데 교육의원 중 공식 선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 사설

## 4·3행복자 신원 확인, 유족 채혈참여 절실

경북 경주시 옛 코발트광산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된 곳이다. 이곳에서 제주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와 제주 4·3평화재단은 2025년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4·3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 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도외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5명과 도내에서 행방불명된 2명이다. 도외 신원확인 희생자는 대구형무소 희생자들이 학살된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발견된 유해에서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또 대전 골령골에서 발견된 유해 중 추가로 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도내에서는 2007년과 2009년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유해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당시 제주도에는 형무소가 없어서 군사재판에서 징역형 극 추징해야 한다.

## 516도로 논쟁, 이름보다 역사 인식이 중요

제주자치도가 '516도로' 명칭 변경을 놓고 공론화에 착수했다. 오는 30일 농어업인회관에서 '516도로' 명칭을 유지한다고 해서 군사정권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과거에도 '516도로' 명칭 변경 논의가 있었지만, 이해관계자 다수는 현실적 불편과 혼란을 이유로 유지 의견을 냈다. 역사를 대하는 바른 태도는 지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데 있다. 이름을 바꾸는 대신, 그 명칭이 가진 역사적 배경과 문제점을 정확히 알리는 안내와 교육이 병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516도로' 명칭 변경 논의는 감정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를 바꾸는 것으로 과거를 정리하려는 접근은 역사 인식의 빙곤을 드러낸다. 역사는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르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 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 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액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평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8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호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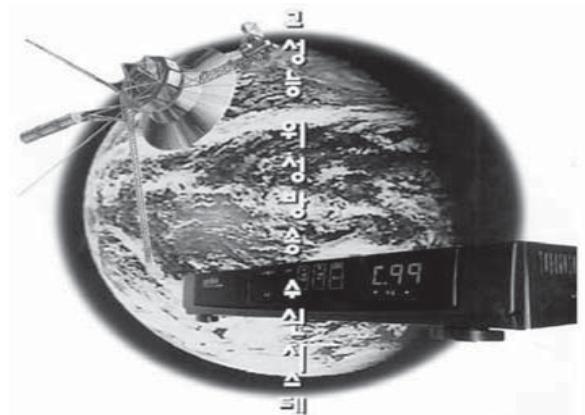
한기림 JK 액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례아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국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 하고 있는 일

- ▶ 키온·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정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 한라전설(주)

대표 :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